

한우 자조금



특집

한우사업단 추진방향
수술대 오른 농협개혁 어떤 모습일까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제2기 한우자조금 구성

한우협회 유통감시단 5명 포상

한우자조금 홍보대행사 '애플트리' 선정

03

2009 • March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제2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장에 남호경 회장 추대 1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 관리위원회 개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3월9일 안성 농협연수원에
서 제2기 1차 한우자조금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제2기 한우자조금 대의원 선출 후 처음으로 열린
대의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기 승인받은 2009
년 한우자조금 조성·운영 실적과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다.

의결사안으로는 대의원회 의장에 조위필(충북 보은)
대의원을 선거를 통해 선출했으며, 감사에 이명수(강
원 영월), 이기호(경남 창녕) 대의원을 위촉했다. 대의
원회는 당연직 7명과 선출직 18명의 관리위원 선출을
위해 전국한우협회, 농협중앙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총
25명의 관리위원을 위촉했다.



대의원회 이후에 열린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
원장 선출, 소위원회 구성,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
결이 있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는 남호경 전 위원장을 추대
해 제2기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정호영
(경남 하동), 조성환(경기 용인축협) 관리위원을 각각
부위원장에 선임했다.



〈표 1〉 한우자조금 임원 명단

직위	도	지역	성명
대의원회 의장	충북	보은	조위필
감사	강원 경남	영월 창녕	이명수 이기호

〈표 2〉 한우자조금 관리위원 추천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도	지역			
축산단체 추천 (20명)	경기(2)	용인	대의원	조성환	부위원장
		김포		우영기	
	강원(1)	양양		이종율	
	충북(1)	제천단양		진항구	
	충남(3)	예산		박연교	
		당진		김충완	
		논산		김영길	
	전북(2)	남원		강병무	
		정읍		박승술	
	전남(3)	보성		김병수	
		장흥		김남배	
		여수		강도용	
	경북(4)	상주		김용준	
		군위		전영한	
		예천		윤호식	
		의성		김홍길	
	경남(2)	하동		정호영	부위원장
		거창		이강우	
	축산기업중앙회(유통업계)		전무	한수현	
	충남대학교(학계)		교수	빅중수	
전국단위축산단체의장(1명)	전국한우협회		회장	남호경	위원장
농식품부장관 지명(1명)	농식품부축산경영팀		팀장	허태웅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지명(1명)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부장	배효문	
소비자단체장 지명(1명)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이윤자	
수납기관(도축장) 대표(1명)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		회장	김명규	



“한우농가 의지 모아 한우산업 활성화”



남 호 경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처음에 한우 자조금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한우농가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소비자, 도축장 등 다양한 분야의 노력이 모여 한우자조금이 설치되고, 이제는 제2기 사업이 출범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을 회고해 보면 2005년 한우자조금을 처음 설치하고, 작년에 다시 대의원 선거를 통해 2기를

구성하기까지 우리 한우농가들의 관심과 열정이 바탕이 되어 한우자조금이 출범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노력위에 한우자조금은 보다 성숙되어 한우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우선 올 해는 제2기 한우자조금 출범으로 한우농가간에 일치 단결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양한 이견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우산업을 위해 마음은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자조금이 한우산업을 민족사업으로

이끌고,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초대 위원장에 이어 재추대를 받아 위원장으로 시작하는 만큼 초심을 잊지 않고 더욱 열심히 해서 농가들의 소중한 돈을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성원에 보답키 위해 더욱 노력하고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의견은 언제든지 개진해주시고, 한우자조금을 잘 이끌 수 있도록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우자조금 안착, 농가홍보에 주력”



조 위 필
한우자조금대의원회 의장

한우자조금은 국민의 세금과 한우농가가 어렵게 낸 돈으로 우리 한우산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우농가 스스로 우리 산업을 위해 자조금을 거출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도 몇몇한 돈이며,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미래 지향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를 홍보하여 한우산업을 지켜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 한우자조금이 많이 알려졌으나, 이제 한우자조금은 2기 출항을 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도 일부 농가들은 돈을 내면서도 자조금이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있기도 하여 자조금에 대한 농가 홍보도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제2기 한우자조금 대의원회 의장으로서 자조금의 성격과 목적에 맞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더욱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농가에

홍보하고 한우산업을 부흥하도록 자조금을 더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의원회 의장으로 한우자조금 사업에 대해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사업에도 활발히 참여해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한우자조금을 순항으로 이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통해 저를 뽑아주신 대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기대에 부응하는 의장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우자조금 이렇게 쓰입니다

2009년 한우자조금 조성 및 운용 계획

◎ 조성

(단위 : 천원)

구분	요구(A)	승인(B)	증감(B-A)
농가거출금	9,600,000	9,600,000	-
정부지원금	9,000,000	9,000,000	-
이익잉여금	3,800,000	3,800,000	-
합계	22,400,000	22,400,000	-

◎ 운용

(단위 : 천원)

구분	요구(A)	승인(B)	증감(B-A)
소비홍보	10,614,350	10,584,350	△30,000
교육 및 정보제공	7,266,741	6,899,873	△366,868
조사연구	1,477,900	1,477,900	-
징수수수료	480,000	480,000	-
운영비	754,019	727,019	△27,000
예비비	1,806,990	2,230,858	423,868
합계	22,400,000	22,400,000	-

◎ 운용부분 세부 승인내역

항목	세 목	2009
소 비 홍 보	합 계	22,400,000
	소 계	10,584,350
	계	7,156,350
	TV · 라디오 광고	4,056,000
	TV 라디오 등 PPL 및 협찬	900,000
	신문광고	1,000,000
	잡지광고	96,000
	옥내/외광고	450,000
	온 · 오프라인 소비홍보 및 PR대행사	501,550
	한우문화공모전	70,000
	전시차량	34,800
	통화연결음서비스	48,000
	계	3,428,000
	소비 촉진 및 개발	
	한우고기직거래판매지원	200,000
	기업체연계소비행사	200,000
	캐릭터용품제작	120,000
	한우소비활성화	1,408,000
	대한민국한우먹는날	1,500,000
	소 계	6,899,873
교 육 및 정 보 제 공	계	1,574,702
	생산 농가 자질 향상	
	한우농가교육조직및포상	250,000
	한우후계자육성교육	122,228
	한우농가해외연수	80,000
	한우농가전문기술교육	500,374
	한우양축기술 보급 및 교육	500,000
	전국한우지도자대회	22,100
	한우인의날	100,000
	지역 공헌 및 정보 교류	
	계	617,800
	한우경진대회지원	570,000
	초음파육질진단경영대회	47,800
	한우종합학술대회 개최	-
	계	3,093,747
	생산지 및 소비자 정보 제공	
	소비자대상체험및홍보교육	1,349,800
	한우교육홍보관	39,232
	한우농가대상홍보및게도	135,375
	자문위원회	10,000
	인터넷정보제공	645,500
	한우자조금소식지	681,000

항목	세 목	2009
교 육 및 정 보 제 공	생산지 및 소비자 정보 제공	
	한우전문점경영교육	72,840
	어린이창작동화 공모전	90,000
	축산물전시행사	40,000
	한우농가법률소송자문수수료지원	30,000
	계	1,471,624
	유통 개선	
	한우유통투명화정보제공	832,624
	한우전문점 · 원산지표시제정보제공	129,000
	소비자유통및판매지원	510,000
	계	142,000
	거출 홍보	
	거출기관 홍보지원교육	60,000
	대의원활동및조직화교육	82,000
	소 계	1,477,900
	계	1,477,900
조 사 연 구	조 사 연 구	
	한우자조금효율성분석	30,000
	근출혈발생원인과경감방안연구	90,000
	친환경한우번식우축산단지 조성방안	100,000
	한우밸리조성방안	100,000
	한우부위별영양및요리책개발	100,000
	소비자의안전의식및라이프스타일분석을 통한한우소비확대전략	45,000
	한우육의부위별, 등급별 최적숙성조건설정예관한연구	30,000
	한우의저지방부위육을이용한 편이형가공제품불고기	100,000
	한우자조금사업의연차적세부추진방향	50,000
	선진해외식육안전관리방안 분석및최적 한우생산시스템생산을위한적용방안연구	50,000
	쇠고기브랜드유형별 경영분석과소비기반확충방안	100,000
	한우산업전망모형개발	50,000
	한우쇠고기고유맛특성예관한연구	50,000
	저지방부위한우를이용한 단체급식요리개발및보급	32,500
	대체사료작물Kenaf대량생산 및이용기술개발을 통한생산성증대	240,000
	한우장기비육예관대사증후군연구	80,000
	한우모니터링제	230,400
	운영비	소 계 727,019
	징수 수수료	소 계 480,000
	징수수수료	480,000
	예비비	소 계 2,230,858
	예비비	2,230,858

※ 한우농가 교육 · 조사연구사업은 교육 및 조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임



▲사진은 2008년 2기 여성한우 아카데미

“여성 한우인 육성한다” 여성 한우 아카데미 제3기 교육

지난해에 시작한 「여성한우 아카데미」가 제3기 교육생을 모집해 3월24일부터 26일에 걸쳐 2박3일 과정으로 열린다.

생산성 향상 및 고급육 생산 기술 교육, 여성한우인 목장경영 참여 확대 유도, 여성 한우인의 경영마인드 제고 등을 위해 열리는 이번 교육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여성 한우인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농협설악공제수련원에서 열리는 「여성한우 아카데미」는 자부담 5만원에, 한우자조금에서 기타 교육부대비용을 지원했다.

문의: 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 서동진 팀장, 박근하 차장
(Tel. 02-2127-7422)

한우 TV PPL 홍보 강화 소띠 해 맞아 한우 관심 높이고 소비 활성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08년 한우자조금 예산중 미집행 예산으로 2~3월 중 TV, 라디오 PPL 홍보를 강화했다.

한우자조금은 MBC 라디오 '생방송 여성시대'에 한우선물세트 협찬을 비롯, SBS 대한민국 COOL 프로그램을 통해 한우 사골, 꼬리 등 보신부위를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한우세트를 지원했다. 3월 10일 MBC 프라임에는 한우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해 유구한 역사와 함께 우리 민족의 가족이자 자존심으로서 한우를 조명해 소비자의 요청에 의해 3.16일 재방송 되는 등 한우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애플트리’ 한우자조금 홍보 대행사로 선정

2009년 한우자조금을 홍보할 전문 PR 대행사에 ‘애플트리’가 선정됐다. 2월26일 제2축산회관 6층에서 열린 ‘한우자조금 홍보대행사 선정심사’에서 한우의 안전성, 품질우위를 위해 ‘국민한우’를 제안한 ‘애플트리’를 대행사로 최종 선정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올 한 해동안 ‘애플트리’와 함께 한우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우정책 방향 이끌 ‘한우사업단’ 현황과 추진방향

한우산업 조직화(일명: 한우사업단)가 한우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 산업의 모든 정책을 전국 140개 내외의 한우사업단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에 대한 농가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우산업조직화란 어떤 취지에서 어떻게 추진되는 것인지 살펴보자.

□ 한우산업조직화 기본방향

시·군 단위 140개 내외 한우사업단을 구성해 정부 지원사업을 사업단 및 소속 농가 중심으로 지원한다.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해 우수 사업단에 대해서는 차별지원 한다.

시·도 단위 12개소 정도의 광역 한우사업단 구성을 유도해 시군사업단과 연계해 대규모 우수생산기반을 구축한다. 이들은 전문컨설팅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한다.

대형축산물가공업체를 육성해 광역한우사업단과 연계해 수요 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 시·군 한우사업단

• 개요

시군단위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농가협업체(지역축협, 한우협회 시군지부, 한우조합, 영농조합법인 등)로 개량사업, 브랜드 사업 등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업체 형태로 자체 운영규정을 갖고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사업단 소속 번식농가들이 생산한 송아지를 비육농가들에게 계획 출하하는 형태다.

시군별 1개 사업단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사업단 선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시·도지사가 승인할 수 있다.

• 선정절차

한우사업단 구성시 번식농가의 경우 최소 100호 이상 참여는 필수다. 단 관내 전체 한우사육농가가 100호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농가의 80%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사업단 희망 조직은 개량사업추진 절차, 번식·비육우 관리체계, 계획 생산·출하 계획, 교육·컨설팅 계획 등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해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접수된 신청 조직을 시·군에서는 자체 평가를 거쳐 대상조직을 선정하고 시도지사에 승인요청을 한다. 시도지사는 이를 검토하여 사업단 승인(광역한우사업단 참여 조직을 우선 선정)을 하고, 이를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한다.

• 사업승인 요청시 제출자료

기본적으로 조직체의 번식·비육농가 및 사육두수, 공동 조사료 생산기반 등이 포함된 개요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개량, 번식·비육우 관리, 조사료 공동생산, 브랜드 육 생산 및 출하계획, 기술교육 실시 계획(인력, 운영방안), 소요 예산(자부담 계획 포함) 등을 담은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덧붙여 관련기관과의 협력방안, 송아지 계약 공급 계획, 농가 자율학습조직 운영계획, 개체 통합관리 DB구축 내역 등과 아울러 농가 부담금 확보 방안 등의 자료가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

참가를 원하는 조직체는 이 같은 자료를 준비해 오는 6월말까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 정책사업 추진 방향

2010년부터 한우암소개량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등은 사업단 및 사업단 소속 농가에만 지원하고 품질고급화장려금 등 일부사업을 인센티브 사업으로 활용한다. 지자체는 사업단 활성



시·군한우사업단평가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 개량사업	30	
- 번식우 관리 정도	(10)	번식우 관리 수준 평가
- 혈통고등등록우(12개월이상) 관리 두수	(10)	500두이하 : 1점 500~1,000두 : 2점 1,000두 이상 : 10점
- 암소 관리 두수	(10)	500두이하 : 1점 500~1,000두 : 2점 1,000두 이상 : 10점
○ 조사료 등 공동생산	10	
- 조사료 공동생산량	(3)	500천톤/년이하 : 1점 500~999천톤 : 2점 1,000톤 이상 : 3점
- 사료공동구매량	(3)	500천톤/년이하 : 1점 500~999천톤 : 2점 1,000톤 이상 : 3점
- 조사료 공동 생산 노력	(4)	TMR 공장운영 등 정도
○ 공동출하	30	
- 공동출하 물량	(10)	1,000두 이하 : 3점 1,000~3,000두 : 5점 3,000두 이상 : 10점
- 1등급 이상 출현율(거세우 기준)	(10)	65%이하 : 3점 65~75% : 5점 75%이상 : 10점
- 계약 생산·출하 실적	(10)	50%미만 : 3점 50~80%미만 : 5점 80%이상 : 10점
○ 교육 및 컨설팅 실적	20	
- 학습조직 운영수	(5)	20개소 미만 : 1점 20~40개소 미만 : 3점 40개소 이상 : 5점
- 교육 전문인력 확보정도	(5)	1명 : 3점 2이상 : 5점
- 컨설팅 실시 농가수	(5)	50농가/년 미만 : 3점 50농가/년 이상 : 5점
- 학습조직 활성화 정도	(5)	학습조직 활성화 정도
○ 조직체 운영	10	
- 농가의 조직체 운영비 부담율	(5)	20%미만 : 2점 20~49% : 3점 50%이상 : 5점
- 조직체 구성·운영 능력	(5)	조직체 활성화 정도
합계	100	

※ 매년 위의 평가표 기준에 따라 사업단이 평가됩니다.

화를 위한 자체육성계획 수입을 추진하는 등 정부지원사업을 사업단 중심으로 지원한다.

□ 광역한우사업단

• 개요

수개의 시·군 사업단이 규모화 및 활성화를 위해 광역화 하고자 할 경우 광역 한우사업단을 구성한다.

각 도별 1~2개소씩 12개소 운영.

• 선정절차 및 선정방법

장기발전계획(3년) 수립 후 장기발전계획과 연동된 연간계획을 수립한다.

발전계획에는 중장기 비전과 목표, 조직화·계열화 전략, 상품화 전략, 브랜드 관리체계, 마케팅 시스템 구축방안, 판매계획 및 과거 판매실적, 의사결정체계(마케팅 주체)확립방안, 관할 지자체의 광역 사업단 지원 계획 등이 포함된다.

장기 계획은 올해 6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 개요

도축·가공·유통기반을 갖춘 전문 판매회사를 육성하여 한우고기 수요확대 및 시장점유율 제고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을 추진한다. 우선, 농협중앙회를 육성한 후 민간 유통업체를 추가 육성하는 것을 검토한다.

광역한우사업단과 연계해 우수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생산·도축단계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다. 또한 대규모 물량을 확보해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 추진절차

농협중앙회는 중장기 비전과 목표, 조직화·계열화 전략, 상품화 전략, 브랜드 관리체계, 마케팅 시스템 구축 방안, 판매계획 및 과거 판매실적, 의사결정체계 확립방안 등을 담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3월 말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고 이를 검토해 선정한다.

• 대형축산물 유통·가공업체 지원

종합자금을 연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3년거치 일시상환(3%)조건이며, 매취사업자금, 판매시설자금, 홍보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성낙서 전국한우협회 당진군지부장

농가 현실 직시한 정책 수립 기대



한우사업단 구성에 대해 농가들의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기존에 잘 운영되면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한 브랜드의 경우 또 다시 사업단 구성이라는 틀에 맞추려면 다시 진통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사업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하는 정부에 묻고 싶다. 그렇다면 기존 브랜드 정책은 사업단과 어떻게 연계되는지 혼란이 있다.

브랜드에 맞추라고 말한지 얼마나 지났다고 다시 사업단으로 형태를 바꾸라는 것인지 농가들은 갈피를 잡기 어렵다.

지역별로 사정이 다르고 농가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게 마련이다. 이를 고려치 않고 단순히 사업단이라는 틀에 모두 끼워 맞추려 하는 정부의 정책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현장의 농가들이 무엇을 어려워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이를 반영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길 기대한다.

박승술 전국한우협회 전북도지회장

한우사업단 선정 기준 '농가의 열정' 우선돼야



한우사업단이 과열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는 정책자금에 사업단을 중심으로 쓰겠다고 말한 것 때문이다.

순수하게 한우산업에 대한 열정을 가진 조직체가 아니라 정책자금에 눈독 들어 참여한 조직체가 많아진다면 사업단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표류하게 될 것이다.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조직한 사업단은 최대한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열정을 가진 조직체로 선정돼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들 사업단에 필요한 것은 정책자금의 지원보다 제도적으로 활발히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하는 것이다. 지금의 상황은 각 단체 간에 경쟁만을 부채질할 뿐 우수한 단체를 선정하는 방안은 되지 못한다.

지역에 능력있는 조직체의 특성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필요로 하고, 하고자 하는 조직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현재 조직체의 여건이 아닌 열정과 능력, 가능성으로 사업단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남배 전국한우협회 전남도지회장

정부 주도 사업단 교육사업, 자조금 활용 재고 필요



한우사업단 추진이 너무 조금씩 추진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사업단 추진 배경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사업단이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좀 더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의지를 갖고 참여하고자 해도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농협 이외의 조직은 참여하기가 어렵다. 사업단의 평가항목, 기준 등이 상대적으로 협회나 타 조직체가 수긍할 수 있도록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배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육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다. 현재 사업단 계획에 따르면 모든 지역 농가교육을 사업단에서 책임지도록 하고 있지만 현재 한우자조금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사업단에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이다.

사업단 구성은 정부의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 농가 거출금인 한우자조금을 사업단의 교육예산으로 활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농가교육 만큼은 어떤 형태로든 자조금 교육 예산과 별도로 100% 정부 예산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수술대 오른 농협개혁...어떤 모습일까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지배구조 개편 핵심

농협개혁의 1단계 작업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번 농협개혁은 이명박 대통령이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꾸라”는 지시에 의한 것인 만큼 우선 1단계 개혁으로 중앙회와 조합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번 농협법개정안은 소유자(조합원/조합)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사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조합의 규모화·전문화를 통해 경제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농림수산물부가 이런 내용으로 농협법개정안을 마련, 농협개혁을 하게 된 데는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의 비리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중앙회장의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비리 재발을 막고, 정치적 성향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일선조합의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경영 전문성이 요구되고, 조합 선택을 조합원이 자유롭게 함으로써 농업인을 위한 조합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는 농림수산물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농협법을 놓고 대체토론을 거쳐 현재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상태에 있다.

법업계 취지엔 ‘공감’...쟁점사항별 ‘이견’

이번 농협법개정안에 대해 정부와 농민단체, 농민단체와 농민단체, 농민단체와 농협 등과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적지 않지만 농민단체 주축로 전국 순회 토론회 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단체간에도 입장 정리가 이뤄진 상태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주축로 공청회를 열어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상황이지만 농식품위 소속 의원간에도 적지 않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이번 개혁안이 만족할 정도는 아니라면서도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대체적으로 정부안에 찬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사안별로 약간의 견해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농협법 개정을 바라는 눈치다.

‘축산대표 선출 특례조항 유지’ 축산업계 요구 수용

특히 쟁점사항으로 불거진 중앙회장의 선거방식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것과 축산경제대표이사를 포함한 각 사업별전담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에 대한 선출방식 변경 중 축산경제대표이사도 타 대표이사과 같은 선거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축산업계의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자 정부는 축산업계가 요구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의 요구안은 현행대로 특례조항을 뒤 달라는 것.

또 하나의 쟁점사항은 조합장의 비상임화로 정부는 비상임화로 하되, 조합규모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조합자산 규모 1500억원 이상 조합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조합자산 규모를 2500억원~3000억원 수준에서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쟁점사항은 조합을 조합원들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선택권 문제로 당초 조합선택을 ‘도’ 단위로 하려고 했으나 조합의 심한 반대로 ‘시·군’ 단위로 축소하겠다고 정부 방침이 선회한 상태다.

1단계 개정안 내달 국회 통과수순 진행 ‘이목 집중’

이처럼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절충하는 등 이번 1단계 개혁을 거쳐 2단계 신경분리를 위한 준비과정을 밟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물식품위원회 법안심소위는 23, 24일 농협법개정안을 놓고 심의를 벌일 계획이다. 이는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수순으로 어떤 모습으로 농협법개정안이 이뤄질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우유통감시단

음식점 원산지 표시관리, 우리가 지킨다

전국한우협회 유통감시원 5명 포상

농림수산물식품부는 지난해 시행된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의 빠른 정착에 기여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관련단체 및 임직원의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기관표창 5곳과 개인포상 37명 등 총 42건을 포상했다.

이 중 전국한우협회는 우영기, 김상민, 이정호, 박종기, 이강우 감시원 등 총 5명이 포상을 받아 한우생산자이자 감시자로서 활약이 눈길을 끌었다.

우영기 전국한우협회 서울·경기 유통감시단장



한우사랑 유통감시단장으로서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에 있어 생산자단체의 일원으로서 유통감시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이정호 전국한우협회 청도지부 사무국장



한우 유통감시의 투명화와 원산지 표시제의 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으로 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에 기여

이강우 한우자조금 관리위원(경남 거창)



원산지단속 시·군 및 관련단체 합동 단속 요청과 원산지표시 위반 시 처벌 강화를 건의하여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함. 한우산업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경쟁력 있는 친환경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

김상민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 사무국장



유통감시단으로 활동하면서 월10회 이상 부정축산물 유통감시에 적극 참여하여 수입육을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업체를 적발하는 등 한우가 한우로 팔릴 수 있는 유통시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

박종기 전국한우협회 나주시지부 사무국장



전국한우협회 나주시지부 사무국장 직책을 5년(2회 연임), 전라남도 축산물 위생 감시원,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 도지회 소속 한우유통감시원으로 활동하며 음식점원산지표시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





한우판매인증점 17개 업소 추가 인증

134개점으로 확대... 인증점 홍보 더욱 박차



전국한우협회는 3월 17일 2009년 제1차 한우판매점 인증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증제에 신청한 총 22개 한우판매점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17개 업소에 인증을 부여했다.

전국한우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인증심사위원회에 김명재 전국한우협회 강원도지회장이 심사위원장으로, 임관빈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이 심사위원, 장정남

음식점경영컨설턴트가 심사위원으로 새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국립축산과학원 이종문 연구관, 운영탁 축산물등급판정소 본부장, 이윤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회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인증점 심사를 위한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심사결과 총 22개 접수업체 중 20곳의 음식점이 서류심사에 통과하였으며 현장심사를 진행한 20개 업소 중 17개 업소가 최종 통과했다.

인증을 받지 못한 업소는 등급판정서와 거래명세서 미비, 위생관리상태 불량 등의 사유로 인해 인증점에 탈락했다. 따라서 한우판매점인증제는 기존 인증점 122

개점을 포함하여 총 134개점으로 운영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이번에 인증을 받은 17개 업소 대표를 대상으로 인증점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여 인증지침, 홍보물신청, 계약서 작성 등 한우판매점인증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2009년 1차 한우판매인증점 인증업무를 담당한 박선빈 전국한우협회 차장은 “앞으로 서울과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인증점 모집을 위한 홍보를 전개해 한우 인증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인증점에 참여하면 한우에 대한 믿음과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인증점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9년 1차 한우판매인증점 신청현황

연번	지역	상호	대표	연락처	핸드폰	주소	비고
1	대전	OK 한우전문점	이강선	042-822-7176	016-9822-8529	대전 유성구 봉명동 556-21	
2	부산	철마대가한우전문점	김태철	051-723-0880	017-569-4107	부산 기장군 철마면 연구리 236번지	
3	부산	미동암소정	김창연	051-721-9441	010-3133-9441	부산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 476-1	
4	충남	대둔산양촌한우타운	김성철	041-741-0838	010-8837-5725	충남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330-5	
5	전북	총체보리한우암소 세양	전은하	063-545-7474	011-676-9577	전북 김제시 금산면 성계리 622-13	
6	경기	총체보리한우 김포점	김현숙	032-561-4170	011-9747-4038	경기 김포시 장기동 1462	인큐
7	부산	담	박종숙	051-241-6999	010-3776-8558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20번지	
8	충북	뜰안채	홍현국	043-883-3233	011-266-9260	충북 음성군 금왕읍 육령리 38	
9	전남	지리산한우정육식당	전경식	061-641-1232	010-3613-5441	전남 여수시 봉산동 257-13	인큐
10	전남	향촌한우	박성욱	061-685-8243	010-3808-8242	전남 여수시 선원동 1277-7	인큐
11	충북	해맑은아이미소	김병철	043-857-1596	010-9167-1999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292-1	인큐
12	전북	자평	유정희	063-271-2114	017-294-010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374-1	인큐
13	서울	우당	유수근	02-427-0222	011-448-0702	서울 강동구 암사동 462-2	
14	광주	순천한우직판장식육식당	박판호	061-673-9292	011-611-2400	광주 남구 진월동 15-13	인큐
15	대구	뽕뚝소식육식당	박명진	053-634-2620	010-4781-8886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1737-3	
16	경남	한우마을	이봉자	055-864-5759	010-9655-5585	경남 남해군 남해읍 평리 1044	
17	강원	구라미한우촌	김선자	033-644-2208	016-354-6387	강원 강릉시 사천면 판교리 629-2	



5천년 한우 조상신이 지킨다

韓牛와 蚩尤천황

김 영 기 상임고문 · 고조선역사문화재단 치우천황회

소를 토tem으로 한 붉은 악마

우리는 지난 월드컵 축구 대회 때 거리를 가득 메워 함성을 지르며 응원하던 붉은악마를 기억하고 있다. 그 붉은악마를 상징한 도깨비 형상의 그림은 우리 민족의 상고 역사에 나오는 치우천황이다. 그 치우천황의 탄신일은 음력 5월 5일 단오절(단오절은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의 탄신일이기도 하다)로 사실 그 당시 월드컵 기간은 치우천황 탄신일 전후였고 또한 붉은악마라는 이름으로 응원하였으니 우리가 4강까지 올라간 것은 치우천황 기운 덕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역사상 상고사를 고찰해보면, 치우천황은 소를 토tem으로 하는 牛加였고, 전쟁 때에는 소머리를 뿔 투구를 쓰고, 인류 최초로 금속병장기를 사용했으며 치우천황을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나타나면 중국 사람들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고 하며, 전쟁에 절대 지

지않는 軍神으로 추앙받고 있다. 그러므로 치우천황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韓牛와 직접적인 연결성이 있다. 우리 민족이라 할 수 있는 몽골의 소를 “홍우”라 하는 것도 치우천황의 붉은 깃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치우천황이 개발한 금속병장기는 대중화되어 농사용 기구에도 쓰여져, 韓牛와 힘을 합해, 농업 문명의 혁신을 가져와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게 된 것이었다.

우리가 “우두머리”라는 말을 조직의 최고를 상징하는 말로 쓰는 것도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우리 민족이 명절에 하는 윷놀이의 도 · 개 · 걸 · 윷 · 모에서 가장 높은 “모”는 바로 韓牛를 뜻한다(도는 돼지, 개는 개, 걸은 닭, 윷은 말).

소를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풍습

우리 민족은 고조선 역사 풍습을 보면, 전통적으로 집에서 가축을 하는 유목민의 전통도 있었는데, 특히 소뿔 각(角)이나 그 형태로 만들어 술잔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한우를 먹어야 한의학상 동양인 기운에 가장 좋았고(서양인은 돼지가 좋다), 한우를 토tem으로 하는 부족의 힘이 가장 강했기 때문이며, 이는 사계절의 시작인 춘분과 인류 문명의 시작 민족인 東夷를 상징했다.

그리하여 큰 천제를 올릴 때에는 소머리를 쓰는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고, 서양 문명의 최초로 알려지는 수메르(소머리) 문명과 인도의 소를 숭상하는 힌두교도 우리민족의 조상이 서쪽으로 진출해서 이룩한 문명으로, 고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렇기에 힌두교로부터 뿌리 유래를 갖는 불교에서 말하는 前佛 대웅(한웅), 아미타불 등은 바로 소를 숭상하는 우리 민족의 배달국 한웅 천황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뿔잔을 사용하는 북방 기마민족인 흉노족의 제사장 집안 왕태자인 <김일제>가 신라 김씨의 시조로 알려져 TV에서도 방영되었는데 흉노족은 원래 한나(서양에서는 HUNA)족으로 발음이 되었고, 이는 “위대한 태양”이라는 뜻으로 황금과 태양과 태양새 삼족오와 “韓牛”를 숭상하는 민족이라는 뜻이었다. 제주도의 한나산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본래 흉노 한나족은 한머리땅(한반도를 고쳐 부는 이름)에서 북진했다가, 신라로 되어 고향에 돌아온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한나족은 고조선의 삼한 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신한(진한으로도 불려진다. 흉노 즉 한나, 돌궐, 거란의 요, 몽골, 위궐 등이 여기서 나옴)을 이끄는 부족으로, 신라(새로운 태양)라는 이름도 이에서 나왔다고 보여진다. 즉 고조선은 이러한 신한과 말을 토tem으로 하는 마한(말갈족, 서양의 마자르족이 여기서 나옴)과 불한(부여, 고구려, 백제가 여기서 나옴)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고대 우리 민족의 소뿔 삼각형과 세발의 태양새 삼족오 등 삼태극 철학 즉 삼수 분화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었다.

단군왕검보다 앞선 치우천황의 역사

특히 치우천황은 중국의 황제와 함께 백두산 삼청궁에서 자부선인으로 부터 仙道수련법 <氣天> 등을 동문수학을 하였는데 우리 민족의 배달국 한웅천황의 제14대 전통을 받았



고 이에 반발하는 황제를 지금 북경 부근의 탁록 대전을 통해 무찌르고, 지금 산둥성 태산 부근에 남하하여, 고조선 청국국을 세웠다. 현재 발굴된 산둥반도의 “대문구 문화”가 치우천황의 유적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황제는 미개척지이고 누런 강물이 범람하던 서쪽 황하로 가서 신석기를 사용하는 원주민의 지도자가 되어, 중국 하화족의 시조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중국에도 자연스럽게 선진 문명인 금속

문명이 전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치우천황의 배달국 우리 동이족과 황제 헌원의 중국 하화족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BC 2333년의 단군왕검의 고조선 역사가 한단고기, 규원사화 등 소수의 역사책에 의해 전해 와서 지난 서기 2007년에야 국사 교과서에서 정식 역사로 인정된 것에 비해, 이보다 앞선 시대의 치우천황 역사는 도리어 중국 사서에 매우 풍부하게 전해져 오기 때문에 그 역사적 근거가 확실하고 유명하다.

한우산업, 치우천황의 기를 되살릴 때

그러므로 우리는 치우천황의 역사를 통해, 우리 민족의 영광과 불패의 용맹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치우천황과 역사적 관련성이 직접 있는 韓牛는 치우천황을 상징으로 하여, 뿌리 마케팅을 하고, 품종을 잘 보호 발전시키고, 붉은 악마인 치우천황의 불패의 기운을 받으면 우리의 한우 산업은 세계를 제패하리라 본다.

명절에 소싸움(스페인의 鬪牛를 하던 원주민이 우리 동이족임)을 부활시키고, 이를 인간이 하는 씨름, 축구 응원, 붉은 악마, 도깨비 문화, 불교의 사천왕, 돌장승, 제주도 하루방, 목장승, 천하대장군, 단오절 등 치우천황을 상징하는 문화와 韓牛를 연결시킬 필요도 있다. 여하튼 우리 민족의 우두머리는 옛날에 韓牛와 관련있는 사람들이었고, 한우가 치우천황과 같이 불패의 軍神이 되어, 세계에서 가장 품질 좋은 소고기로 인정 받아 최고급 소고기로 수출도 하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제3편

의서(醫書)를 통해 본 한우

남 경 란 교수

소와 관련된 전문서 중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1399년에 편찬된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을 들 수 있다. 이는 고려말에서 조선초까지의 목축 수준과 실상을 잘 보여주는 서적이다.

고려말에서 조선까지 간행된 주요 의약서로는 '구급방' '구급간이방' '언해구급방'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우마양저염역병' '촌가구급방' '동의보감' '동의수세보원' '방약합편' '우역방'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문헌 자료를 통해서만 한우(韓牛)라는 표기를 찾을 수 없다. 한국이라는 어휘가 183년에 간행된 '석봉천자문'에 처음 나타나므로 한국 '韓', '한우'라는 명칭은 적어도 16세기 말 이후에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소의 모든 부위가 약재로 사용

이 모든 의약서들에서 소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부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가 인간의 병을 치유하는 데 사용된 대표적인 약재는 흰소 털, 소뿔, 소 간, 소 기름, 소뼈, 소 골수, 소 젖, 소의 기레, 소 위, 소똥, 소 이빨, 우황고 등 소뿔에서 꼬리까지 약재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없다.

또한 대표적인 약성 상극(藥性相反)을 기록해 눈길을 끈다. '쇠무릎과 쇠고기'가 있으며, 물성 상극(物性相反)으로는 (1) 소와 백주(白酒), (2) 염교와 소, (3) 부추와 소, (4) 돼지고기와 소고기, (5) 소의 창자와 개고기 등이다. 그리고 임신부가 피해야 할 약으로 '우황'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의약서에 소에 대한 폭넓은 지식 수록

주요 의약서 자료들을 수집·분석해본 결과, 의약서에는 소의 감정법에서부터 농경할 소를 고르는 법, 새끼 낳을 어미 소 보는 법, 우사 지을 땅 선택법, 소의 질병 치료법까지 다양하고 폭 넓은 일상의 지식들이

이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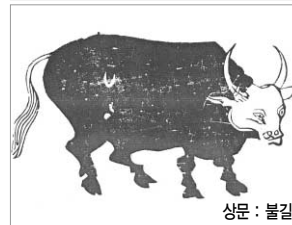
이같은 사실은 고려 말기의 대표적인 의약서인 '신편집성우의방'과 조선 말기의 대표적인 의약서인 '우역방'에 기록된 소 감정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상우형상급모색론'에서는 소 중에 머리 위에 흰 털이 있는 것, 검은 소인데 머리가 희고 꼬리가 흰 것, 청우(靑牛)인데 머리와 누렁고 뿔은 흰 것, 소에 사슴의 얼룩이 있는 것 등은 키우기를 금기하고 흰 소인데 머리가 누런 것, 황우가 척추와 등 위에 흰 줄이 있는 것, 황우인데 가슴 앞에 일태의 흰 것 등은 집안 이 일어나고 식구들이 화목해서 매우 길하고 이롭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 농경용 소에 있어 눈은 큰 백맥이 있어 눈동자를 관통해야 하고, 뿔은 짧으면서 두 뿌리가 가까워야 하고, 몸체는 목뼈가 크고 길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국가차원에서 소를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감별법 통해 자연스럽게 종자개량



이번 연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 소가 거듭된 종자개량을 거쳐 지금의 한우로 정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감별법을 통해 우리나라의 소는 자연스럽게 종자개량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지금의 한우로 자리 잡게 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약재에 사용된 소 가운데 황우(黃牛)의 빈도가 가장 높다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점이다.

노인에게 ‘암소 공짜드려요’ 소 배내사업 인기

경북 울진군에서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소 배내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울진군은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옛 농촌분위기 재현으로 친환경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65세 노인들을 대상으로 6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7마리의 암소를 구입해 사업신청한 노인들이 살고 있는 농가에 입식했는데 사업시행 후 1년이 지난 현재 2개 읍·면에

서 암송아지 2마리와 수송아지 3마리 등 모두 5마리가 생산됐다.

이 사업의 사업자인 노인들은 지원받은 암소를 쇠죽과 조사료만으로 사육해 송아지를 출산한 후 5~6개월 더 사육한 뒤 해당 읍·면장에 반납하면 암소는 사업자의 소유가 된다.

읍·면에서는 송아지를 다음 대상자(신청 농가)에 인계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가격 올라도 잘나가는 국내산 축산물

3월 9일 GS마트에 따르면 올 1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 고객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국내산 축산물 구입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는 전년 동기 대비 21%, 닭고기는 11.6% 증가했으며, 한우고기도

9.8% 증가했다.

김성용 GS리테일 축산팀장은 “각종 먹거리 파동으로 인한 수입산에 대한 불신과 외식을 줄이고 가정식을 늘리는 소비문화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 한우像 순례 ①



위의 한우상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업계의 강한 상승장(불마켓)을 기대하며 “희망”을 주제로 2002년 제작한 서울대 미대 신현중 교수의 작품이다. 이중섭의 “황소”를 모티브로 하여 강인하고 역동적인 황소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다.

한우자조금 애독자 퀴즈

Q 한우판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안정적인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인 전국한우협회가 100%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전문 판매점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는 무엇일까요?
(11쪽 참고)

※ 해당 퀴즈에 대한 정답을 4월 5일까지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택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 www.ihanwoo.org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www.hanwooboard.or.kr





한우소비 홍보가 더욱 절실할 때 입니다.

2009년 한우자조금사업 추진방향

- 한우소비 기반 확대를 통한 소값 안정에 역점**
 직거래 장터, 식육판매업소, 유통업체와 연계한 마케팅을 통하여 한우 소비촉진과 한우농가의 사육심리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시장개방 등 외부환경에 능동적 대처를 통한 한우산업 보호**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우의 안전성과 우수성에 대한 홍보 전략을 확대하고 유통투명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하여 한우만이 한우로 유통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온라인 등 네트워크 구축 확대에 위기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 한우농가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자조금 역할 제고**
 “소비홍보를 통한 소값 안정에 기여하는 자조금”으로서의 역할을 발휘하고 수입 쇠고기와의 차별화를 부각 시켜 소비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가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교육·R&D사업 확충**
 한우농가 기술교육(정책방향, 고급육 생산, 사양관리 등)강화와 산·학·연 연구과제 공모를 통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실시하겠습니다.